

농어촌공사 김포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ⓒ 김포데일리 | 승인 2025.02.26 14:47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(지사장 김태호)는 지난 2월 20일, 지사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김포지사는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난해 농가에 3.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,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김태호지사는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.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덧붙여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'2025년 선임대-후매도사업*'의 1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.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*선임대후매도사업: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.

저작권자 ©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포데일리